

K-기업, 반도체 신기술 소개

슈퍼컴퓨팅2024

삼성, CXL 기반 D램 전시
SK, HBM3E 8단·12단 소개
디노타시아 등 부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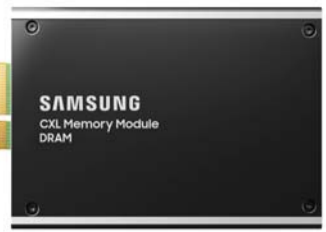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슈퍼컴퓨팅 2024(SuperComputing2024)'에 참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반도체 기술들을 선보인다. SC 2024로 불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글로벌 최첨단 기술 기업들이 참가해 연구성과와 인사이트를 나눌 예정이다.

SC 2024 콘퍼런스가 17일부터 22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려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이 신기술을 겨룬다.

SC 콘퍼런스는 미국 컴퓨터학회(ACM)와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컴퓨터학회가 1988년부터 개최하는 세계적인 컴퓨팅 관련 행사다. SC콘퍼런스에 참가한 글로벌 업체와 학회 등은 HPC, 네트워킹, 스토리지, 데이터 분석 분야의 최신 기술을 공유한다.

이번 SC24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가해 최첨단 AI 반도체와 이룩한 컴퓨팅 기술을 선보인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슈퍼컴퓨팅과 데이터센터에서의 AI 반도체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전세계 고객사에 기술력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다. 두 기업 모두 HBM과 CXL 등을 중심에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전시 부스만 운영하고 추가 패널 토의 등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지난해에도 참석했던 삼성전자는 HBM3E(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해 CXL(컴퓨터익스프레스링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D램 제품, 8세대 V낸드 기반 PCIe(고속 입출력 인터페이스) 5.0 등



CMM-D(CXL Memory Module-DRAM)/삼성전자



CXL 2.0 제품 /SK하이닉스

을 전시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양산을 시작한 HBM3E 8단 및 12단을 비롯해 CMM(CXL 메모리 모듈)-DDR5, 생성형 AI에 특화된 GDDR6-AiM 기반 가속기 카드 'AiMX', 고성능 컴퓨팅(HPC)과 AI 서버를 위한 초고속 메모리 모듈 DDR5 MCRDIMM, 데이터센터 최적화된 PS1010 E3.S eSSD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AiM은 메모리 내에서 일부 연산을 수행해 기존 메모리 대비 높은 대역폭과 우수한 에너지 효율성을 보이는데, SK하이닉스의 AiMX는 GDDR6-AiM 칩을 사용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 특화된 AI가속기 카드 제품이다.

올해는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도 참가한다. 디노타시아, 망고부스트, 파네시아 등이 단독 부스를 운영하고 반도체산업협회 통합 부스를 통해 리벨리온, 모빌린트, 수퍼게이트, 파두, 모레, 하이퍼엑셀 등 6개 기업도 참가한다.

/김서현 기자 seoh@

부동산PF 수수료 줄어든다 용역·서비스에만 대가 부과

금감원, 과도한 수수료 관행 개선
차주에 수수료 정보 투명하게 공개
이세훈 부원장 "운영 리스크 경감"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수료 부과 시 용역·서비스에만 대가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단기 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했던 수수료 부과를 제한하고,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8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PF 수수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5월부터 가동한 TF에는 8개 금융협회(중앙회), 4개 건설 유관 단체,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주택산업연구원·건설산업연구원, 금감원 유관부서 등 참여했다.

개선된 제도에는 ▲수수료 부과 대상 제한 ▲수수료 체계 정비 ▲수수료 정보 제공 확대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금감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원은 현재 부동산 PF 수수료가 용역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이 혼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동산 PF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하도록 시도한다. 대표적으로 분양물 미달 등 발생 시 부과되는 페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단기 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되는 주선·자문수수료 등의 부과도 제한키로 했다.

신용위험 가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신심사, 명확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등에 따라 대출금리(이자)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익공유 부분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해야 한다.

수수료 항목도 32개에서 11개로 대폭 정비한다. 법률약정·사업성 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일원화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차주(돈 빌리는 사람)에게 부동산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법 위반 소지를 차단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하는 방식으로 금융사의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제도 개선 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돼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설업계 한 참석자는 그간 업계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에 대부분 반영된 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보안사고 매년 20% ↑... 기술 표준화도 과제

>> 1면 '미래 일상 재편...'서 계속

또 삼성의 '비스포크' 가전 라인업은 AI를 통해 사용자의 식습관을 분석하고 맞춤형 레시피를 추천하는 등 더욱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LG전자의 'LG 씽큐' 플랫폼도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적정 시간에 커튼을 열고 선호하는 음악을 재생해 기상을 돕는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실내조명과 음악을 자동 조절하는 '감성 케어'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스마트홈을 넘어 '스마트시티'로

AIoT 기술은 가정을 넘어 도시 전체로도 확장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5G·6G 네트워크의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AIoT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첨단 도시 모델이다.

예컨대, 싱가포르의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는 도시 전체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교통, 에너지, 환경 등 도시 문제를 AI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국내에서는 세종시와 부산시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돼 AIoT 기술

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세종시는 AI 기반 교통관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흐름을 최적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AIoT의 급속한 발전은 데이터 보안 문제라는 새로운 과제를 낳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IoT 기기 관련 보안 사고는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형 보안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삼성SDS는 '넥스레저' 플랫폼을 통해 IoT 디바이스의 데이터 무결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 표준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도 협력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매터(Matter)'를 함께 출범했다. 매터는 스마트홈 기기 간 호환성 표준으로, 이 덕분에 다양한 브랜드의 기기들을 원활하게 연동할 수 있다.

정부는 AIoT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G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통해 오는 2028년부터 6G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혜민 기자 hyem@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에게 **꿈**을
교사에게 **강**지
학부모에게 **신**뢰

서울교육이 다시 시작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와 함께! 힘차게! 뛰어가겠습니다